

# 내포지역 관치성황당의 분포와 소멸

이 인 화\*

Distribution and Annihilation of Governance Songhwangdang in Nae-po District

Lee, Inn-Wha

## I. 서론

내포(內浦)지역은 충남서북부 5개 시군과 보령 7개 면, 아산 3개면지역을 지칭하는 말로 예산군, 당진군, 홍성군, 서산시, 태안군과 보령시 천북·청라·청소·주포·주교·오천·구보령시 등 옛보령현 지역, 아산시 도고면·신창면·선장면 등 옛신창현 지역을 말한다. 내포는 순수한 우리말로는 「안개」라 하고 사전적 의미는 「바다나 호수가 육지로 후미진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고려 공민왕 때 널리 사용되었고, 조선시대 삼교천 영역을 지칭, 또는 이증환의 『택리지』에서 언급한 가야산 주위 10여 고을이나 조선시대 이 지역 행정중심지였던 홍주목과 관련한 홍주진관 소관의 20여 고을을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일반화된 개념은 이증환의 『택리지』에 언급한 가야산 주위의 10여 고을이었다.

성황당은 고려시대 중국에서 들어온 신으로 11세기부터 국가의 공식적인 제사 대상이 되었고 수호신의 기능, 가뭄과 홍수시 비를 조절하는 기능, 치병과 기복의 대상으로 조선시대 지방관이 위판을 모시고 봄, 가을로 제사를 하였다.

내포지역에 분포하였던 관치성황당을 내포지

역의 성곽축성의 관련성을 찾아보고 각 군현의 관행제 배치와 속에서 중요성을 파악해 보며 그 분포와 소멸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내포지역 성곽축성과 관행제

### 1. 군현별 성곽축성과 외관파견

내포지역은 대외적으로 바닷길이 폐쇄되어 있었을 때인 여말선초 왜구침입이 잦았다. 왜구는 여말부터 세종대까지 100여 년간 해안지방 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었다. 왜구의 주된 공격목표는 조운선과 조창이었으며, 호우로 강물이 불었을 때에는 내륙 깊이 침투하기도 하였다. 공민왕 6년과 7년, 우왕 원년·4년·7년 등에는 내포지역에 왜구의 침입이 잦아 조운이 통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관료의 녹봉지급에도 차질이 초래되었다.<sup>6)</sup> 세종 즉위년에는 무략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연해방위 수령에 충원하여 내포지방에도 무관 수령이 많이 파견되었고 수군진이 설치되었다.

여말부터 세종대까지 해안방어의 임무를 부여받았던 무관직 수령들은 성을 쌓았다. 이때 축성된 성곽들은 읍성·산성·진성 등으로 구분되는데, 예산·덕산·대흥·신창을 제외한 태안·서산·홍성·

\* 민속지리학박사, 면천초교 교사

6) 공민왕 원년(안흥, 서산)·6년(결성, 홍주)·7년(면천)·9년(신평)·13년(내포)·18(예산, 면천)·19년(내포)·21년(홍주, 양광도)·22년(태안·폐군), 우왕 원년(서산, 결성, 양광도 연해안)·3년(신평, 홍주, 덕산, 신창)·4년(태안, 덕산, 합덕, 서산, 면천)·5년(당진군 정미면)·6년(결성, 홍주)·7년(덕산, 서산), 11년(서산)에 내포지방에 왜구가 침입.



<표 2> 조선 말기 내포지역 관행제 현황 및 배치

목군현	관가의 사제(祠祭)
홍주	진산 월산, 사직단 주서, 문묘 군남, 성황사 군남(고읍 성내), 여단 군북, 용당진사(용당단) 군남
서산군	사직단 군서, 문묘 군서, 성황사 군북(산성내), 여단 군북
태안군	진산 백화산, 사직단 군서, 문묘 군동, 성황사 군서북, 여단 군북
면천군	사직단 군서, 문묘 군동, 성황사 군북(몽산), 여단 군북(몽산)
덕산현	사직단 현서, 문묘 현서, 성황사 현동, 여단 현북, 도우소 용연(가물었을 때 빌면 효험이 있었다) 가야갑사
대흥군	진산 봉수산, 사직단 현서, 문묘 현북, 성황사 현서(봉수산, 세상에 전하기를 소정방이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 여단 현북, 기우소 봉수산 고성송지연
결성현	진산 평산, 사직단 현서, 문묘 현북, 여단 현북, 모산당 현서, 남당(모산당포) 현동
신창현	진산 성산, 사직단 현서, 문묘 현북, 성황사 현북, 여단 현북
예산현	진산 금오산, 사직단 현서, 문묘 현동, 성황사 현동북, 여단 현북
당진현	문묘 현동, 여단 현북, 사직단 현서, 성황사 동남(?)
보령현	진산 진당산, 문묘 현동, 여단 현서(마강리), 사직단, 성황사 (?)

다. 아산현의 경우 사직단에서 봄과 가을의 가운데 달 상순에 사신(社神 : 땅신)과 직신(稷神 : 곡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제물은 관가에서 보내고 제관은 지주와 향교 제임자가 맡았다. 성황사는 성황신에게, 여단은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여귀에게 지냈다. 성황제는 봄과 가을 동삼월 여제 전 3일으로, 여제는 봄에는 청명일, 가을에는 7월 15일, 겨울에는 10월 초1일에 지냈다. 기우제의 순서는 처음 사직단에서 시작하여 영인단, 공진성을 거쳐 장자못에서 마쳤다.

제수는 예산현의 경우 관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는데 사직제는 대략 주미 1두 8승, 도미 9승, 칠미 9승, 직미 9승, 속미 9승, 곡자 1원반, 대추 4승, 호두 4승, 생울 4승, 소어 2급, 형림 4승, 등유 3합, 황축 1쌍, 축장지 1장, 용축백지 5장, 소거 15명, 탄 1두, 청저 4승, 근저 4승, 돈성 1수를 보내오고 대동에서 폐저 2필을 보내왔다. 성황제제물도 봄에 1차, 가을에 2차, 연 3차를 시행하되 사직제와 같았고 여제도 규모나 조달방법이 비슷하였다.<sup>8)</sup>

구한말 내포지역 주군현 관가에서 지낸 사제(祠祭)의 현황을 <표 2>에서 보면 제단의 배치가 일률적이다. 즉, 여단은 예외없이 각 주군현의 북쪽에 있다. 이는 각 주군현의 관아가 진산을 중심으로 한 풍수사상이 개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직단과 성황사가 한 방향에 있는 주군현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진산의 좌우에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문묘는 예외없이 향교안에 소재한다. 이는 향교라는 보호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내포지역 관치성황당의 분포와 소멸

#### 1. 성황제의 변천

성황당은 고려시대에 이 땅에 들어왔는데, 성황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태조의 아들인 안종(安宗) 육(郁)이 성종대(981~997)에 사수현(泗水縣)으로 유배를 가서 자신을 성황당 남쪽 귀룡동(歸龍洞)에 얹어서 묻어 달라는 유언을 했다는 기사다.<sup>9)</sup> 그리고 문종 9년(1055)에 선덕진(宣德鎭) 신성(新城)을 새로 설치하면서 성황신사를

7) 《고려사》 권63, 〈예 5 고례〉, (증보문헌비고 권61, 예고 성황조), 高麗文宗 九年 宣德鎭新城 置城隍神祠 賜號崇威 春秋致祭

8) 예산군지편찬위원회, 1987, 전계서, p.457.

두고 봄과 가을로 제사했다는 기록이 보이는 바<sup>10)</sup> 성황신이 늦어도 11세기부터는 국가의 공식적인 제사의 대상이 되었음을 짐작케<sup>11)</sup>하며 이것이 성황사를 세운 최초라 할 수 있다.<sup>12)</sup>

본래 민속종교의 신들, 특히 산천신이나 성황신들은 수호신의 기능, 가뭄·홍수·비를 조절하는 기능, 치병·기복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 때문에 민간에서나 국가에서 이들 신들에게 계속 제사해 왔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 신들의 기능을 활용하면서 유교적 통치를 계속해 갔다.

고려시대에는 성황신과 산천신을 중심으로 신들에게 봉작(封爵)을 주었는데, 《고려사》세가(世家)에 41건의 기록이 나온다.<sup>13)</sup> 신호(神號)의 종류는 작호(爵號)·덕호(德號)·훈호(勳號)·존호(尊號)·공호(功號) 등 다양한데, 봉작은 원칙적으로 국왕이 신하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고종 23년과 충렬왕 7년, 그리고 충선왕 복위년의 기사에 성황신을 대상으로 봉작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이렇게 계속 신호를 더하던 것도 공민왕 20년(1371)을 끝으로 끝이 나는데, 이는 명나라가 산천신에게 숭명미호(崇名美號)를 주는 것은 불경한 것이라는 이유로 폐지하면서 가호(加號)를 중단했다.<sup>14)</sup>

조선왕조는 유교를 지배이념으로 성립한 국가로 제례를 중시하였다. 그래서 조선왕조는 건국 직후부터 유교국가에 걸맞는 국가제사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성황사는 고려시대부터 국가 제사로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에서도 이를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조에서도 성황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었고, 성황신앙이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제도화하였다.

조선왕조의 사전 문제는 1392년 8월 예조의 장관 조박(趙璞)이 처음 제기하는데, 성황제가 국가의 기본제도로 모부(某府), 모주(某州), 모현(某縣)의 성황지신으로만 칭할 것과 지방관으로 하여금 위판(位版)을 설치하여 봄·가을로 제사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고<sup>15)</sup>, 같은 해 9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성황제는 지방 수령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자고 건의하여<sup>16)</sup> 모두 받아들여졌다. 즉, 군현성황신의 작호(爵號)를 혁거(革去)하고 모주성황지신(某州城隍之神)으로 칭하여<sup>17)</sup> 국가나 지방관 차원에서 치제하였다.

고려시대는 무격이 성황제를 주재해 떠들썩하고 공개적인 축제형이었으나, 조선시대는 소수의 제관만이 참석하여 엄숙하게 진행되는 유교식 제례였다. 또 민간의 성황제를 음사(淫祀)로 규정하여 사전에 수록되지 못한 신에게 제사를 한다든가 분한을 넘어선 제사는 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성황신에게도 민간인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음사였고, 군현명을 붙여 성황신의 이름을 붙였고, 신상을 폐지하고 목제 위패를 모셨으며, 성황신의 처첩 등 가

9) 《고려사》 권 90, 열전3.

10) 《고려사》 권 63, 지17, 예 5, 잡사, 문종 9년 3월 임신.

11) 김기덕, <고려시대 성황신에 대한 봉작과 순창의 성황대신사적 현판의 분석>, 《성황당과 성황제》, 민속원, 1998, p.131.

12) 허경진, 2001, 한국의 읍성, 대원사, p.31.

13) 박호원, 1997, 한국 공동체 신앙의 역사적 연구-동제의 형성 및 전승과 관련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pp.105 ~ 106.

14) 김기덕, 상계서, pp.134 ~ 135.

15) 《태조실록》 권 1, 태조원년 8월 경신.

16) 《태조실록》 권 2, 태조원년 9월 임인(壬寅).

17) 《태종실록》 권 25, 태종 13년 6월 을묘.

죽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성황신을 인귀(人鬼)로 보지 않고 지기(地祇)의 하나로 간주하여 세종 12년부터 각도단묘순심별감(各道壇廟巡審別監)을 파견하여 준수 여부를 체크하여 처벌하였다.<sup>18)</sup>

## 2. 성황당의 제신과 특징

「성황(城隍)」은 중국에서 「성지(城池)」라는 뜻으로, 성읍을 지키기 위하여 성읍둘레에 파놓은 성지(城池)의 신이다. 즉 성읍의 수호신으로 「황(隍)」이라는 글자가 「해자」, 곧 「성밖에 만든 물 없는 도랑(城下之無水)」을 뜻한다. 그래서 읍성마다 성황을 모시는 사당, 곧 성황사를 두게 되었다. 따라서 성황사는 고을마다 고을 수호신으로 성황사(城隍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읍성은 글자 그대로 고을을 지키기 위해 쌓은 성인데 「군」이라는 글자 자체가 성으로 둘러싸인 고을을 형상화한 것이다.<sup>19)</sup>

읍치단위의 제의는 그 주제집단에 있어서 향리층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sup>20)</sup> 읍치성황제 주제집단의 변화와 제의 전통의 창출이라는 글에서 우리의 공동체 신앙을 연구하는 데는 지역단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21)</sup> 이른바 무속식 이동형 제의가 조선시대 관행제(官行祭)에서 나타나는데 별신굿과 같이 무당이 주축이 된 제의이다.<sup>22)</sup> 그리고 순창성황대신사적기(淳昌城隍大神事跡記)의 발견으로 성황사에 관한 논의가 집대성되기도 하였다.<sup>23)</sup>

고려조 전기에 수입된 성황신 숭배는 그 중기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퍼져 이를 봉사치 않은 곳이 없었고, 점차 토속화되어 고려 말기에 이르러서는 산신 등 토속적인 고유신앙과 합류하여 양자가 혼동 융합되어 동일한 신앙대상으로까지 되었다.<sup>24)</sup> 조선시대에 이르러 민촌의 경우 성황제는 유교식 절차를 갖추지만 그것이 끝난 후 성황굿이라는 무속적 행사를 갖는 이중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마을 구성원이 반상(班常)으로 구분되어 양반들의 참여가 있는 경우 다분히 유교적 제례의 틀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성황당에는 대부분 토지지신(土地之神), 성황지신(城隍之神), 여역지신(厲疫之神) 등 3신위를 모시는데, 이것은 군현단위에서 행해지던 사직신, 성황신, 여역신에 대한 제사가 마을단위로 축소되면서 합쳐진 것이다.<sup>25)</sup> 동해안의 성황당에는 신체를 놓되 토지지신(土地之神), 성황지신(城隍之神), 여역지신(厲疫之神) 중에서 성황지신만을 모시는 곳이 많고 화상을 모실 경우에는 위패가 없다.<sup>26)</sup>

조선의 성황당은 산신과 성황신을 합사한 사례가 쉽게 파악된다. 서울 성북동 성황당은 당대에 9개의 신화(神畫)가 봉안되어 있다. 신의 배치는 정면벽에 산신(우), 성황신(중), 동대문대감신(좌)의 화상이 걸려 있고 우벽에는 삼불제석, 산신부인, 좌벽에는 도당대감, 수배(隨陪) 2장, 입구 좌측에도 수배(隨陪) 등의 화상을 배치하고 있다. 또 동소문 송림 성황사의 경우 정면에 남

18) 《세종실록》 권 49, 세종 12년 8월 갑술.

19) 상계서, p.18.

20) 안태현, 2000, 문경지역 영남대로변의 공동체신앙과 지역성, 민속문화의 지역성과 보편성, 집문당, p.151.

21) 이기태, 1997, 읍치성황제 주제집단의 변화와 제의 전통이 창출, 민속원, p.213.

22) 이필영, 1994, 마을신앙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pp.212 ~ 216.

23) 한국종교사연구회편, 1998, 성황당과 성황제, 민속원, p.187.

24) 유홍열, 1985, 〈조선의 산토신(山土神) 숭배에 대한 소고〉, 《민속의 연구》(1), 정음사, p.255.

25) 정승모, 1991, 성황사의 민간화와 향토사회의 변동, 태동고전연구 제7집, p.26.

26) 김선풍, 1978, 동해안의 성황당설화 및 부락제고, 관대논문집 제6집, 관동대학교, p.28.

무성황대신지위(南無城隍大神之位), 남무호구아씨신지위(南無戶口阿氏神之位), 우벽에 남무삼신지위(南舞三神之位)라 쓴 지방이 붙여 있다. 이 성황사에서 성황신 외에 두신(痘神)이라 전하는 호구아씨신과 산아(産兒)를 지시한다는 삼신을 합사하게 된 것으로 조선의 성황당이 재래의 고유신앙을 얼마나 포함하여 있는가를 역력히 엿볼 수 있다.<sup>27)</sup>

문경읍치 성황사에는 성황당을 비롯해 삼신당, 마당, 방앗간, 정체를 알 수 없는 건물 두 군데까지 모두 일곱 개의 건물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城隍之神」과 「土地之神位」 등 2개의 위패가 있었다 하였고, 과거에는 선반위에 나무 혹은 돌로 만든 손가락 두 개 정도 크기의 말소돼지 등의 동물상이 있었다고 하였다. 제의일(祭儀日)도 과거 읍치 성황당에서 현감이 정월 초하루 먼저 지냈고, 그 신당제사가 끝나면 다른 마을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어 고을 수령이 치제하던 성황사가 제의 후에 인근의 다른 마을들이 제의를 지냈던 것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읍소재지를 중심으로 외곽으로 나갈수록 제의일이 뒤로 정해지는 위계질서를 파악할 수 있어 그 지역의 읍치성황당이 가장 우선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8)</sup>

따라서 성황당은 민간신앙화 하면서 성을 수호하는 신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염원까지도 담은 당으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 3. 내포지역 성황당의 분포와 소멸

성황사는 사직단과 여단과 더불어 각 군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1개소씩 설치되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포지역에서도 흥주를 중심으로 10개 군현에 모두 성황사가 있었다. 특히 여말부터 세종대까지 해안방어를 목적으로 지방의 주요 거점에 축조된 군사적 기능과 행정적 기능을 동시에 지닌 성곽을 쌓아 왜구의 침입을 막으려 했으므로 이 때 축조된 읍성마다 성황사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읍성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96개소이던 것이 1481년 세종 12년에 찬한 《동국여지승람》에는 159개소로 증가하였는데<sup>29)</sup>, 이는 읍사로 치러지던 성황제가 제도화했다고 보여진다. 즉 지방 행정구획과 관계를 이루는 성황사는 읍치(邑治) 또는 읍치와 가까운 진산(鎭山)에 있었다. 이는 마을 단위의 성황당과 구별하기 위해 읍치 성황사 또는 관인(官認) 성황사라 하겠다.

이들 성황사가 한말까지 내포지역 각 군현마다 존재했는데, 옛 면천군에 두 곳, 옛 당진현에 1곳<sup>30)</sup>이 있었다. 특히 면천북씨의 사패지였던 면천(당시 운주였으며 지면주사였음)은 성이 몽산(蒙山 : 표고 295m)을 위시하여 주변의 5개 봉우리와 잣골(城谷)을 에워싼 몽산성 성황사, 또 조선 세종 23년에 쌓은 면천읍성에 성황사가 있었다. 따라서 이 성황사는 고려때 운주 성황사로 고려시대 정황으로 보아 봉작명은 알 수 없으나 신호(神號)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옛 당진현의 성황사는 고지도를 통해 파악할 뿐 현재 그 위치를 알 수 없다. 이런 관치성황당은 1896년 대한제국의 선포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고 1908년(융희 2년)에 이르러 관행사제는 사라지게 되었는데, 몽산 성황사는 1920년대 당집도 노후되어 없어졌다.

27) 유홍열, 전계서, p.260.

28) 안태현, 2000, 문경지역 영남대로변의 공동체신앙과 지역성, 민속문화의 지역성과 보편성, 집문당, pp.153 ~ 154.

29) 심정보, 1995, 《한국읍성 연구》, 학연문화사, p.341 ~ 343.

30) 김추운, 1998, 《당진의 옛지도》, 당진문화원, p.12.

내포지역에 관치성황사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곳은 아산 신창면 읍내리 학성산에 있는 성황사이다. 고지도에 신창현의 성황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성황사는 원래 학성산의 정상부에 지름 50cm이상의 굵은 원형 나무기둥으로 된 기와 3칸정도 건물이었다. 그 건물 주변은 2000년도 까지 돌담이 쳐 있었는데, 훼손되고 일제강점기에는 신당안에 산각시 내외의 목상(木像)과 동쪽으로 산신탱화가 있었다. 남자목상은 흰바지 저고리, 여자목상은 남색치마 노랑저고리를 입었다.

이 성황사 건물은 일제강점기까지 존속되다가 일제 중후반에 화재가 발생해 소실되었고 1940년대 후반 심한 가뭄으로 당집을 다시 지었으나 얼마 후에 다시 소실되었으며, 1990년 민간에서 시멘트벽에 슬레이트 지붕의 당집을 그 자리에 지었다. 성황제를 주관해온 성씨는 신창현의 이속(吏屬)인 호장(戶長)집으로 그 동안에는 산제를 폐할 수가 없어 인취사(咽嘴寺)에서 불교식으로 산제를 지내 명맥을 이었으나, 이것은 전통문화복원의 붐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일제말, 그리고 1945년 이후 가뭄과 더불어 지은 초가 건물 소실은 앞으로 조사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종교적인 요인에 의해 미신타파의 일환에 의해 소멸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새롭게 지은 신당에는 목상은 없고, 무신도 몇 점을 모셨다. 하지만 국가 공인 사묘로서의 면모는 없었다. 주민들은 이 당은 산제제당, 산각시당으로 불렀다고 한다. 제물은 익히지 않은 통솥태지로 칼을 뽑아 올려 놓고 삼색실과, 술, 매를 올린다. 당일은 정월 초보름안에 택일하고, 주당은 생기복덕을 가려 뽑았으며, 무당과 주당이 제를 함께 지냈다. 제가 지내진 이후 굿판이 시작되며 노인들의 말에 의

하면 산제는 마을의 가장 큰 잔치였다고 한다.<sup>31)</sup>

#### IV. 결 론

이상과 같이 관행제와 관치성황당의 분포 및 소멸상황을 살펴보았다. 관행제는 고을마다 청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일정하게 배치되었다. 그 중에서도 성황당은 가장 중요한 관행제로 내포지역 12개 목·군·현과 3개 수영·진 등에서 배치되어 있었다. 내포지역은 여말선초 왜구침입이 잦아 조운이 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세종 즉위년에는 무관수령이 많이 파견되었고 이들 무관수령은 성을 쌓아 덕산, 신창을 제외한 태안, 서산, 홍성, 당진, 면천 보령, 해미 등 내포 모든 읍에 읍성을 쌓았고, 예산, 대흥 등의 내륙지역에는 산성, 오천, 안흥, 평신, 소근포 등지의 수근진에도 성을 쌓았다.

이렇게 축성된 주군현에는 사직단과 성황사가 국가통치기구의 하나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세워져 춘추로 제사를 행하였는데 내포지역의 각 주군현에 진산, 문묘, 사직단, 성황사 여단, 기우소 및 사단 등이 청사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즉, 각 주군현의 관아를 중심으로 사직단과 성황사가 좌우에 배치되고 문묘는 향교안에 배치했다.

성황은 특히 성읍의 수호신으로 읍성마다 성황을 모시는 사당을 두게 되는데 사직단과 여단과 더불어 각 군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1개소씩 설치되어 내포지역에서는 홍주를 중심으로 10개 군현에 모두 있었다. 특히 여말부터 세종대까지 해안방어를 목적으로 지방의 주요 거점에 축조된 군사적 기능과 행정적 기능을 동시에 지닌 성곽을 쌓아 왜구의 침입을 막으려 했으므로 이때 축조된 읍성마다 성황사가 설치되어 한말까

31) 충남발전연구원, 2003, 아산시문화유적 분포지도, 충청남도, pp.261 ~ 262.

지 내포지역 각 군현마다 존재했다.

文 獻

- 《고려사》 권 63, 권 90.  
《세종실록》 권 49.  
《증보문헌비고》 권61.  
《태조실록》 권 1, 권 2, 권 25.  
김기덕, <고려시대 성황신에 대한 봉작과 순창의  
성황대신사적 현판의 분석>, 《성황당과  
성황제》, 민속원, 1998.  
김선풍, 1978, 동해안의 성황당설화 및 부락제고,  
관대논문집 제6집, 관동대학교.  
김추윤, 1998, 《당진의 옛지도》, 당진문화원.  
박호원, 1997, 한국 공동체 신앙의 역사적 연구-동  
제의 형성 및 전승과 관련하여-,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심정보, 1995, 《한국읍성 연구》, 학연문화사.  
안태현, 2000, 문경지역 영남대로변의 공동체신앙  
과 지역성, 민속문화의 지역성과 보편성,  
집문당.  
안태현, 2000, 문경지역 영남대로변의 공동체신앙  
과 지역성, 민속문화의 지역성과 보편성,  
집문당.  
예산군지편찬위원회, 1987, 예산군지, 예산군.  
유홍열, 1985, <조선의 산토신(山土神) 숭배에 대  
한 소고>, 《민속의 연구》(1), 정음사.  
이기태, 1997, 읍치성황제 주제집단의 변화와 제의  
전통이 창출, 민속원.  
이필영, 1994, 마을신앙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정승모, 1991, 성황사의 민간화와 향토사회의 변동,  
태동고전연구 제7집.  
충남발전연구원, 2003, 아산시문화유적 분포지도,  
충청남도.  
한국종교사연구회편, 1998, 성황당과 성황제, 민속  
원.  
허경진, 2001, 한국의 읍성, 대원사.